

저온산화 반응으로 제조된 Titanium Oxide 박막의 미세구조  
 (Microstructure Evolution of Titanium Oxide Thin Film  
 by Low Temperature Oxidation Process)

공주대학교 박인수, 이기선

### 1) 서론

Titanium oxide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 대표적으로 rutile과 anatase상을 갖는다. 이들은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어 각각 3.0 eV, 3.2eV의 band gap을 갖고 있다.<sup>1)</sup> 특히 anatase상을 갖을 경우 광촉매적 인 성질이 나타나는데, 약 400nm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 영역에서의 광이 조사될 경우 가전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conduction이 일어나며, 이때 발생된 전자들이 강력한 산화·환원력을 갖는다.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태양광 및 형광등에서 발생하는 380~400nm 파장의 광으로도 충분한 전자 여기가 일어나며, 이러한 효과에 의해 물, SOx, HC, NOx 및 각종 유기물의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<sup>2)</sup> 이러한 특성의 anatase-TiO<sub>2</sub>를 코팅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무법, 졸-겔법, 도포법, PVD, CVD법 등이 고려되고 있다. 분말·입자 상태에서 비록 우수한 광촉매능을 보여도 코팅법에 따라 기판에 고정시에 입자간 성장 및 상변태 등으로 인해 표면의 구조변화, 표면적의 급격한 증대, 표면입자의 탈락 및 코팅막의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.<sup>3)</sup> 이러한 성질은 특성의 재현성과 사용범위 제한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.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lass 및 stainless steel 표면상에 금속 Ti 박막을 물리적으로 증착 후 저온에서 산화반응시켜 직접 anatase-TiO<sub>2</sub>를 형성시킴으로써 공정을 단순화하고 코팅막의 결합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.

### 2) 실험 방법

순수 금속 Ti를 corning2948, 304-stainless steel 표면에 두께 약 1200Å으로 코팅한다. 코팅방법은 Electron Beam-Ion Plating법을 이용하였다. 각각의 시편은 653~973K의 온도에서 0.5~24 시간동안 산화반응 시켰다. 산화온도가 낮을수록 산화속도 느려서 산화막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, 이 연구에서는 온도범위를 위와 같이 선정하였다. 반응로의 분위기는 산소로 포화된 수증기와 대기중의 2종류를 사용하였는데, 전자는 H<sub>2</sub>O 용기 온도는 373K이었고, 산소유량은 10lt/min.로 유지하였다. 873K이상의 고온 산화는 후자의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. 산화막의 결정구조 및 미세조직은 XRD, AFM 및 Cross-sectional TEM 등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. 산화막의 조성분석은 AES-depth profiling, 결정의 화학적 결합상태는 XPS를 통해 실시되었다.

### 3) 실험 결과

Ion Plating법으로 형성된 금속 Ti 박막의 두께는 약 1200Å으로 확인되었다. XRD 실험 결과 산화온도 653~923K 범위내에서는 Ti의 산화에 의해 Anatase-TiO<sub>2</sub> 산화물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었으며, 873K 이상의 고온-대기중에서 산화된 Ti은 Rutile-TiO<sub>2</sub> 산화물을 형성하였다. 이로부터 저온산화법으로 Anatase-TiO<sub>2</sub> 산화물 형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. 673K에서 3시간동안 산화된 Ti/glass의 경우 Cross section - TEM 관찰 결과 약 500Å의 산화막 두께를 나타냈다. Anatase-TiO<sub>2</sub> 산화물은 약 100Å 크기로 관찰되었다. AES-depth profiling 으로부터 순수 TiO<sub>2</sub> 산화물층은 외곽표면에 주로 형성되며, 내부로 향할수록 금속 Ti 층 내부에서 부분적인 산화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.

### 4) 참고문헌

1. J.D. Brown, D.L. Williamson, A.I. Nozik. J. Phys. Chem., 89, 3076(1985).
2. 渡部俊也. 化學工業., 12, 978(1995)
3. Y.W.Chen, W.G.Klemperer, C.W.Park, Mater.Res.Soc.Symp.Proc.271, 57(1992)